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총평 • 적중 분석

상상국어평가연구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총평

- 2025. 11. 13. 상상국어평가연구소

01 출제 경향 및 난이도

“① 독서 난도 상승, 문학 난도 평이, 언어 강세 유지 ② EBS 연계율 소폭 하락, ③ 중상 수준 난도 문항 다수 출제, ④ 증가된 정보량의 소화에 따른 풀이 시간 압박”

올해 수능은 지난 수능과 올해 6모, 9모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었다. 중상 수준의 다소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이 배치되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빡빡한’ 시험이었을 것이다. 특히 ‘독서의 귀환’이 눈에 띈다. 최근에는 영역별 난도와 관심이 독서에서 문학으로 이동했다는 인식이 대세였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독서 파트가 수능 국어의 등급을 결정짓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선택 과목의 경우 화작에 비해 언어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은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EBS 연계의 경우 독서는 연계 내용을 다양한 지문들에서 끌어오고, 문학도 연계 작품의 비율이 다소 줄었다. 킬러 문항이 사라진 대신, 화작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정확한 정보 이해와 꼼꼼한 선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간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등급컷은 화작 88~89, 언매 84~85(원점수, 1컷 기준)점으로 예상된다.

02 영역별 분석

■ 독서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독서 영역에서는 네 세트 모두 EBS 연계가 이루어졌으나 체감 난도가 매우 높았다. 연계 교재를 학습한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느껴질 만한 소재임에도 심화된 내용을 다루어 지문을 구성했다는 의미다. 지문 분량은 복합 지문의 경우 작년 수능에 비해 한 문단 정도가 줄었지만, 나머지 두 지문은 비슷했다. 독해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간의 관계를 소개한 독서론(수특 p.278 ‘독서 능력’ 연계)은 기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난도도 평이했다. 다만 3번 문항이 일반 독서 세트의 <보기> 문항 유형을 활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6모처럼 사회 분야에서 출제한 복합 지문은 EBS 연계 교재의 여러 지문을 조합하여 구성했다는 점이 특이했다(수특 p.162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과 가압류의 효과’, 수특 p.244 ‘법의 해석 방법과 전자 기록 위작의 의미’, 수특 p.267 ‘급부 불능의 유형과 유상 계약의 담보 책임’ 연계). 담보와 보증이라는 전문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여러 개념들을 병렬적으로 제시, 비교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난도를 조절했다. 다만 (나)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은 편이라 내용 정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6번 문항은 지문에 등장하는 주체(주채무자, 보증인, 채권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8번 문항은 (가), (나)의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열팽창의 원리와 액추에이터 장치를 소개한 기술(수특 p.186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는 합금’ 연계)은 EBS 지문 내용을 1문단에서 압축해서 제시했고, 핵심 개념어를 반복하여 활용했다. 그렇지만 대상 간의 비례/반비례 관계와 전문적인 용어 사용, 특정 현상을 분석할 때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까다로웠다. 11번 문항의 정답 선지는 추론적 성격이 강해 쉽지 않았고, 특히 12번 <보기> 문항은 지문의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제재와 상황을 제시하여 난도가 높았다. 인문(수특 p.98 ‘인격 동일성에 관한 논의’ 연계)은 깊이 있는 철학 주제를 다루어 지문 난도가 높았다. 이 지문은 EBS 연계 교재의 주변 논점을 심화, 확장하여 재구성했고, 추상적 개념어의 빈번한 사용과 이중 부정이 포함된 선지 형식 등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 **문학**

문학은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도로 출제되었다. EBS 연계 작품으로는 「수궁가」, 「감나무 그늘 아래」, 「북새곡」이, 비연계 작품으로는 「그리움」, 「최립에게 주는 글」, 「독가촌 풍경」,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2편이 출제되었으며 약 40%의 연계율을 보였다. 「수궁가」는 출제 부분이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부분과 80% 이상이 겹쳐, 연계 산문의 경우 연계 정도를 대폭 높이는 최근의 경향을 유지했다. 갈래 복합의 경우 현대시 2편과 고전 수필을 결합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신 고전 시가는 EBS 연계 작품인 가사 「북새곡」과 사설시조 두 편을 결합한 4문항으로 출제되었다. 현대 소설은 유명 작가의 생소한 작품을 비연계로 출제한다는 기조를 이번에도 보여 주었다. 문항의 경우, 고난도 문항은 눈에 띄지 않지만 올해 6모와 9모처럼 작중 상황과 관련된 사실적, 세부적 정보를 확인하는 문항들이 다수 포진되어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다. 특히 모든 세트에 복수의 약물로 표시된 정보들을 비교하는 문항들이 존재했다. 두 작품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24번 문항, 작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선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34번 문항이 특히 까다로웠다고 할 수 있다.

■ **화법과 작문**

화작은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평이한 난도를 보였다. '풍혈지'라는 지형을 주제로 한 발표인 화법 세트는 문항 유형도 익숙하고, 정오 판단의 근거도 명확하여 쉬웠다. 융합 세트는 '웹툰 영상화 현상'을 주제로 한 방송 대담과 대화, 비평문으로 구성되었다. 40번 문항은 각 지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풀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작문 세트는 '완벽주의'를 제재로 한 설명문으로, 글쓰기 계획을 묻는 문항을 나중에 배치하여 문항 순서에 변화를 주었다. 45번 문항의 경우 난도가 높은 유형이지만, 자료의 성격과 활용 취지가 어긋난다는 점을 정오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 유의했다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언어와 매체**

언어는 지문형(35~36)에서 자음과 모음의 구성, 이중 모음의 발음, 문자의 변화 양상 등 익숙한 제재를 다루었으나 이를 '문자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주제로 묶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문항의 경우 지문과 선지의 정보를 세밀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37번은 시제 선어말 어미와 높임의 특수 어휘 구분, 서술어의 자릿수 등에 관해 물었다. 39번도 사동사와 피동사의 구분,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 연결 어미와 종결 어미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탄탄하게 갖추었는지가 언어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매체는 '온라인 알림 메시지'라는 새로운 형식과 함께 카드 뉴스, 화상 회의와 같이 익숙한 매체들이 활용되었고, 난도는 평이했다. 24학년도 수능 이후로 두 번째 세트처럼 학생 회의를 기반으로 온라인 매체 자료(앱, 뉴스레터, 게시판 등)를 구성하는 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03 상상 모의고사와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평가원의 지침은 수능을 쉽게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도 '리듬'이다. 올해 수능은 상 수준의 문항은 별로 없지만 중상 수준의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수험생들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또한 지문의 정보량이 많아짐에 따라 선지 정보의 확인도 더욱 꼼꼼히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꾸준한 훈련을 통해 독해 속도를 끌어올리고 문항 유형에 익숙해져야 한다. 최신 입시 경향을 반영한 상상국어와 함께 이에 대비하도록 하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상상국어평가연구소
적중 분석

■ 상상국어 수능 적중 정리

영역	제재(문항)	상상국어 모의고사	이매진/N제
독서	[1~3] 독서론		2호 4주차, 6호 4주차
	[4~9] 담보에 대한 법 해석과 보증 계약	3-1차, 4-3차, 4-4차	1호 2주차, 1호 3주차, 7호 2주차 HOT 100
	[10~13] 열팽창과 액추에이터	7일의 기적 모의고사 5일차	1호 3주차 HOT 100
	[14~17] 서양 철학에서의 인격 동일성 문제	3-3차, 5-3차	3호 1주차
문학	[18~21] 수궁가	5-2차	1호 2주차
	[22~26] 감나무 그늘 아래	3_3차 7일의 기적 모의고사 5일차	3호 1주차 HOT 100
	[31~34] 북새곡	2-1차, 5-6차	7호 3주차 HOT 100
화작	[43~45] 완벽주의	4-2차	
언어	[35~36] 국어사	2-2차, 4-1차, 5-6차, 5-7차	N제 21일차
	[37] 문장	2-1차	
	[38] 담화	4-4차	
	[39] 단어	5-6차	N제 24일차

독서: 독서론 [1~3]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 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단순 관점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 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한다. 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다.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 발달에는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 한편,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내용을 말로 들려주었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을 할 수 있다면,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본다. 또한 해독이 발달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으므로 해독 발달 후에는 독서 경험이 독해 능력 발달에 주요한 기여를 한다고 본다.

『이매진』 2호 4주차 DAY 5 [1~3]

읽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텍스트의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읽기 유창성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읽기 유창성이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독자가 의미 단위로 문장을 끊어 읽으며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읽기 유창성은 정확성, 읽기 속도, 표현력으로 구성된다. 정확성은 글자를 해독하여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읽기 속도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빠르게 읽는 정도를, 표현력은 글을 적절히 끊어 읽어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읽기 유창성은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을 반복하는 ㉠ 음독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 학습자는 글자-소리-의미의 대응 관계를 익히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단어를 해독할 수 있게 되고, 적절한 속도와 억양을 습득하게 된다.

『이매진』 6호 4주차 DAY 5 [1~3]

[A] 첫 번째는 책을 읽기 전 준비 단계인 입지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책이 다루는 소재나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문제의식과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책의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해독 단계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특히 단어의 정확한 뜻을 숙지하고 글의 내용을 면밀히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는 판단 단계로, 책을 읽는 도중에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자신의 생각과 책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책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초서 단계로, 책을 읽으며 교훈이 되는 부분, 핵심이 담긴 부분 등 자신이 집중한 부분을 따로 기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선택한 문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함께 기록한다. 마지막 단계인 의식 단계에서는, 읽고 기록한 모든 것을 통합하여 책의 내용을 스스로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지식을 심화한다.

지문 적중

독서: 사회 [4~9] 「담보에 대한 법 해석과 보증 계약」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권이 그 예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1차

금전 채권의 변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담보 물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하여 금전 채권의 변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담보 물권에는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있다. 이는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매로 처분하여 금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에 따르면 담보 물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인정한다는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확정 판결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진행한다.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면 발생한다. 부동산에 설정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장부인 등기부에 기재된다. 이후 부동산이 매각되면 법원은 매각 대금에서 경매 집행 비용 등을 공제한 배당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즉 배당 권리자에게 배분한다. 이때 담보 물권이 있는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다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배당 권리자 간의 배당 순위는 등기가 설정된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지문 적중

독서: 사회 [4~9] 「담보에 대한 법 해석과 보증 계약」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상국어 시즌4 모의고사 3차

민법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가해 행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과실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매매 목적물 인도 채무와 대금 지급 채무를 지는데, 이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민법상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 담보 책임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채무 불이행 책임과 달리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미리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매매의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평균 품질의 20kg짜리 쌀 10포대'처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이기만 하면 무방하다고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대신 하자 없는 다른 물건의 제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 불이행에 ㉠ 따른 손해 배상의 범위는 불이행 자체에 대한 일차적 손해뿐만 아니라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적 손해인 확대 손해까지 포함되는 데 반해, 하자 담보 책임에서의 범위는 일차적 손해로 한정된다. 또한 매수인의 권리는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속한 거래가 중요한 상인 간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즉시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만약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였다면 인도받은 후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A] 그런데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수인에게 하자 있는 물건을 제공한 경우라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 중 어느 책임을 질까? 이는 하자 담보 책임의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 채무 불이행 책임설은 완전한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므로, 하자 담보 책임은 예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 책임의 일종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위의 경우 매수인은 하자 담보 책임과 본래 의미의 채무 불이행 책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illegible]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 법정 책임설은 [illegible]조를 근거로 든다. 민법 제462조는 특정이 된 목적물을 매도인이 인도할 때에는 인도 시점의 상태로만 인도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책임설은 이로써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의 인도 채무의 이행은 완료되었다고 해석한다. 다만 '유상 계약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대등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수인이 획득해야 공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하자 담보 책임은 민법에서 특별하게 인정하고 있는 법정 책임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위의 경우 매수인은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지문 적중

독서: 사회 [4~9] 「담보에 대한 법 해석과 보증 계약」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상상국어 시즌4 모의고사 4차

형사 소송법 제121조에서는 참여권의 당사자를 피고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어 조사하던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면, 그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이에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법조문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적용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관은 해석을 거쳐 법조문의 의미를 확정한다.

법조문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문리 해석이 적용된다. 이는 단어나 문장의 뜻을 기준으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만약 문리 해석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해석 대상인 법조문과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조문을 참조하는 체계적 해석, 법조문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문 적중

독서: 사회 [4~9] 「담보에 대한 법 해석과 보증 계약」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권이 그 예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중략)

(나)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매진』 1호 2주차 DAY 5 [1~4]
『이매진 HOT 100』 독서 Pick 39 [1~4]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는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이 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해야 하는 보증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한다.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특정 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에 관한 권리를 설정해 준 자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변제자 대위로 이전되는 권리에는 본래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저당권과 다른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 담보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계약 취소권처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갖는 권리는 이전되지 않는다.

지문 적중

독서: 사회 [4~9] 「담보에 대한 법 해석과 보증 계약」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략)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권이 그에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이매진』 1호 3주차 DAY 2 [1~4]

민법으로 보호받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 등이 있다. 그중 물권은 부동산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어 계약의 내용이 계약의 존재를 모르는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 성립하려면 국가기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되어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그런데 주택에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갖는 물권으로,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담보물을 경매에 부친 뒤 낙찰된 목적물의 경매 대금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만큼 먼저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이때 확정 일자란 특정 날짜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행정 기관으로부터 증명받은 날짜를 말한다. 경매에서 임차권이 저당권 등의 다른 권리보다 우선순위인지 여부는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생 시점이 저당권 등기 설정일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자보다 먼저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지문 적중

독서: 사회 [4~9] 「담보에 대한 법 해석과 보증 계약」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권이 그 예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이매진』 7호 2주차 DAY 2 [1~4]
『이매진 HOT 100』 독서 Pick 24 [1~4]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자연법은 인류 보편의 도덕적 원칙에 기반한 규범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고,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실정법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으로, 주로 법조문의 형식을 띤다. 이때 법조문은 최대한 많은 사안에 적용되기 위해 추상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데, 법관마다 조문을 해석한 결과가 달라져 일관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적 판단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어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대표적인 접근 방식에는 법 이론과 법 도그마틱이 있다. ㉠법 이론은 자유·평등·공익 등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나 전체 법체계가 따라야 할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는 입법 단계에서 법조문이 지향해야 할 이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법조문의 해석이 정당한지를 평가하는 틀로 기능한다. 법조문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단어나 문장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여 해석하는 '문리 해석',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토대로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법조문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중시하여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 전체적인 법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체계적 해석'이 있다. 법 이론은 어떤 해석 방법을 적용할 때 그 법조문의 의미가 헌법적 이념이나 도덕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판단한다. 이에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판단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론적인 준거를 제공한다.

지문 적중

독서: 과학 [10~13] 「선형 열팽창 계수와 액추에이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합금인 인바(invar)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7일의 기적 모의고사 5일차

열팽창률은 온도가 상승할 때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규격을 정밀하게 맞춰야 하는 작은 부품을 만들 때는 열팽창률이 낮은 소재가 적합한데, 상온에서 열팽창률이 낮은 대표적인 물질로는 인바가 있다.

인바는 니켈과 철을 특정 비율로 섞어 만드는 합금이다. 이때 두 금속을 녹인 뒤 섞어서 ⓐ굳힐 경우 밀도가 더 높은 금속이 가라앉아 부위별로 비율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열팽창률 또한 부위별로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온을 이용하는 전주 기술이 개발되었다. 먼저 원하는 모양의 틀에 음극을, 니켈에

**핵심 내용,
출제 문장 적중**

독서: 과학 [10~13] 「선형 열팽창 계수와 액추에이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합금인 인바(invar)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그림>

『이매진』 1호 3주차 DAY 3 [1~4]
『이매진 HOT 100』 독서 Pick 28 [1~4]

내열 유리는 열에 강한 유리로서, 끓는 물에도 쉽게 깨지는 일반 유리와 달리 수백 ℃의 열을 가하더라도 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열 유리가 일반 유리와 달리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중략)

열충격 저항은 원자 간의 에너지 교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크다.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물체 내에서 에너지가 빠르게 전달되므로, 특정 부위의 부피만 증가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물체의 구성 성분 고유의 열팽창 계수 또한 열충격 저항에 영향을 준다. 열팽창 계수란 열에너지를 받았을 때 원자 간 간격이 벌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열팽창 계수가 큰 물체일수록 열이 전달된 부위와 전달되지 않은 부위 간의 원자 배열이 쉽게 불균형해지므로 열충격 저항이 작다. 한편, 열충격 저항은 물체의 탄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는 탄성이 높은 물체의 경우 원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더라도 형태만 변할 뿐, 파손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 영률이다. 영률은 외부에서 가한 힘의 크기를, 물체가 파손되지 않는 한에서 물체의 형태가 바뀐 정도로 나눈 값이다. 영률이 작은 물체일수록 작은 힘에도 쉽게 모양이 바뀌는 높은 탄성을 가진 물체이므로 열충격 저항이 크다.

지문 적중

독서: 인문 [14~17] 「서양 철학에서의 인격 동일성 문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한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3차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데, 개인의 인격은 동일한 것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시점 t_1의 인격 P1과 이후의 시점 t_2의 인격 P2가 같은 인격인 이유는 무엇인가? 영혼론자들은 개인의 불변하는 영혼에 의해 인격의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영혼이 각 시점의 인격들에서 공통된 밑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인격들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신체가 소멸하더라도 영혼은 불멸하므로 인격 또한 영구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상상국어 시즌5 모의고사 3차

10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나'는 겉모습이나 성격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되는가? 전통적 철학자들은 이에 관한 답으로 심적 연속성 이론을 제시해 왔다. 심적 연속성 이론이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개인 X의 심적 특성이 이후 시점에 존재하는 개인 Y에게 이어진다는 연속성이 성립할 때, X와 Y가 동일하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심적 특성은 개인이 지닌 기억, 감정, 성격 등의 특성이다. 가령 X의 특정 기억이 Y에게 이어져서 Y도 그 기억을 ⓐ 보유하거나 X가 느낀 감정을 계기로 Y의 성격이 형성되는 경우, X와 Y 간에 심적 연속성이 성립한다. 이때 X의 모든 심적 특성이 Y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적 연속성 이론가들은 X의 특정 기억이 ⓑ 소실되더라도, X의 다른 기억이나 그 외의 심적 특성 가운데 일부가 Y에게 전달된다면 X와 Y가 동일하다고 본다.

지문 적중

독서: 인문 [14~17] 「서양 철학에서의 인격 동일성 문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A]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3차

칸트는 우리의 제한된 인식 체계로는 인간의 본질인 인격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인간의 여러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일종의 개념으로서 전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개인의 인격은 단일하지만 인식 작용을 담당하는 측면과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측면을 가진다고 말하며, 이를 각각 ㉠ 인식적 인격과 ㉡ 도덕적 인격이라고 명명한다.

우선 칸트는 인간의 이성에 주목한다. 그가 보기에 인간이 사물을 감각함으로써 얻은 표상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종합되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이다. 사과의 색이나 맛에 대한 표상들은 이성에 의해 '사과'라는 개념으로 종합되는 것이다. 더불어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 법칙을 수립해, 그에 따라 이기심을 억누르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칸트는 이처럼 이성이 작동하려면 이를 활용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므로 인격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인식 작용과 도덕적 의무의 수행이 여러 시점에 걸쳐, 그리고 개인의 삶 전반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인격은 일생 동안 동일한 것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문 적중

독서: 인문 [14~17] 「서양 철학에서의 인격 동일성 문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3차

현대 심리주의자들은 입증할 수 없는 요소를 배제하는 로크의 이론을 확장해, 현실적인 실체인 인격은 하나의 신체 안에서 '총체적 순간 상태'들 간의 관계를 통해 동일성을 확보한다고 말한다. 총체적 순간 상태란 특정 시점의 인격이 가지는 기분, 성격, 기억 등의 심리적 요소들을 아우르는 집합이다. 연속된 시점에서 최초의 집합을 시작으로 선행하는 집합이 후행하는 집합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이어질 때, 각 집합을 가진 인격들 간의 동일성이 성립한다. 다시 말해 연속된 시점 t_1, t_2, t_3에서 P1, P2, P3이 각각 총체적 순간 상태 S1, S2, S3을 가질 때, S1에서의 성격이 S2에서의 기분을 유발하거나 P2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S2에서의 심상이 S3에서의 기억을 유발하는 등의 관계가 이어지면 세 인격은 동일하다. 이렇듯 현대 심리주의는 기억 외에도 여러 심리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망각의 역설을 해결하고, 인격의 동일성을 전제할 필요 없이 총체적 순간 상태의 생성 과정을 분석해 이를 동일성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순환 오류를 해결한다.

지문 적중

독서: 인문 [14~17] 「서양 철학에서의 인격 동일성 문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을: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①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군.
②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④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상상국어 시즌5 모의고사 3차 [10~13]

12.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철학자 올슨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을 겪은 당시의 개인과 현재의 개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모든 심적 특성들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므로, 심적 연속성은 개인 동일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여겼다. 즉 X의 심적 특성들 가운데 일부가 Y에게 이어진다는 심적 연속성이 성립하더라도, X와 Y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올슨은 신체가 파괴되거나 교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때에만 개인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신체에는 하나의 개인만이 존재하므로, 같은 신체를 동시에 공유하는 두 개인은 있을 수 없다.

① 심적 연속성이 성립하는 경우 언제나 개인 동일성이 성립한다는 심적 연속성 이론가들의 입장은 올슨의 입장과 상충하겠군.
② 심적 특성의 일부가 소실되어도 개인 동일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심적 연속성 이론가들의 입장은 올슨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③ 좌뇌를 이식받은 개인이 이식 전 개인의 심적 특성을 일부 지니는 경우 심적 연속성이 성립한다는 파핏의 입장은 올슨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④ 분열 사고 실험에서 뇌를 이식받은 개인들이 이식 전의 개인과 동일한지에 관한 비분기 관점의 입장은 올슨의 입장과 상충하겠군.
⑤ 같은 신체를 동시에 점유하고 있는 개인이 여럿 존재할 수 있다는 다중 점유 관점의 입장은 올슨의 입장과 상충하겠군.

<보기> 적중

선지 적중

독서: 인문 [14~17] 「서양 철학에서의 인격 동일성 문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한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A]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그 [illegible]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매진』 3호 1주차 DAY 1 [1~5]

(가)

그리스 신화에서 스핑크스는 '아침에 네 발, 점심에 두 발, 저녁에 세 발로 걷는 것은?'이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인간'이라고 답하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이 수수께끼는 자아 동일성에 관한 철학적 문제를 함축한다. 일반적으로 자아 동일성은 개인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가 변화해도 그 사람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때 성립한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인간에게 불변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통념을 전제로 한다. 가령 ㉮네 발로 표현된 아이와 세 발로 표현된 노인을 동일인으로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두 개체 간에 불변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화이트헤드는 자아 동일성이 불변의 요소에 기초한다는 전통적 견해를 거부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존재자들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서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유기체적 세계를 구성하고 운동시킨다. 따라서 어떤 존재자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개별 존재자가 소멸하더라도 그 존재자가 남긴 영향은 다른 존재자들을 통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인간은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한다. 나아가 인간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실체로 의식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를 형성한다. 이때 자아란 주체가 지각하는 사물들, 그 사물들과 관련한 표상이나 감정 등을 아우르는 정신 작용의 복합체로 규정된다. 그런데 이렇게 자아를 구성하는 정신 작용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illegible]성을 지닌다. 즉 화이트헤드가 [illegible]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illegible] 것이다.

(나)

자아 동일성 문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교, 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혼이 곧 자아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아는 평소 육체의 욕망에 빠져 있지만, 종교적 각성을 통해 욕망을 극복하고 신앙과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영혼의 탁월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변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이 자아 동일성의 근거가 된다고 여겼다.

지문 적중

문학: 고전 소설 [18~21] 「수궁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진모리] 우리 ㉡수궁 퇴락허여 영덕전 새로 질 제 일천팔백 칸 기와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추녀 끝에 뚝 떨어져 목으로 잘칵 꺼꾸러져 이 모양이 되얏기로 명의다려 문의한즉 호랑이 쓸개를 열 보만 먹으면 목이 즉효헌다기로 우리 수궁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쓸개 한 보 못 주겠느냐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기어들며 도리랑 도리랑 허고 달려들어 호랑이 아랫도리를 꽉 물고 뺑 돌아 놓으니

[아니리] 호랑이 ⓕ질색허여 아이고 별나리 이것 좀 놓아주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놓아라 호랑이 그 육중헌 놈이 자라에게 매달려 애걸을 허는듸

[중모리] 별나리 전에 비나이다 나는 오대독신으로 소십이 다 되도록 슬하 일점혈육이 없소 만일 내가 죽[illegible] 죄가 망극허오 차라리 내 왼눈이나 하나 빼 잡[illegible] 말고 쓸개만 내놔라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리다

[아니리] 별주부 가만히 생각한즉 쓸개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이 얼주검이 된 모양이라 꽉 물었던 호랑이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늦춰 놓으니

[휘모리] 호랑이 몽그랏다 후다닥 뛰어갈 제 급한 난리 화살 닫듯 조총에서 철환 닫듯 오림에서 조조 닫듯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홀연히 간 곳 없네

[아니리] 전라도 **해남**에서 냅다 뛴 놈이 의주 **압록강 가**에서 숨을 내쉬고 한편을 살펴보는데 남생이 한 마리가 뾰쪼롬허고 내다보니 별주부로 알았것다 에끼 저놈 그 새 저기 쫓아왔구나 게서 또 후다닥 빼 놓은 것이 함경도 ㉢세수람 고개에다 덜럼 올라앉어 장담을 허것다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굳었으렷다

-작자 미상, 「수궁가」-

상상국어 시즌5 모의고사 2차

"장군님,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궁을 들어갔었지요."
"음, 그 말은 나도 들었다."
"수궁 용왕께서 의사줌치 하나를 주십디다."
"의사줌치가 무엇이냐?"
"아, 글씨, 들어 보시오. 의사줌치를 쫙 펴 놓으면 구멍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멍을 탁 튕김서, '병아리 새끼 나오너라.' 허면 하루 일천오백 마리라도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톡 튕김서, '백은 개 청자나 돼지 새끼 죽은 것 나오너라.' 허면 몇 날 [illegible]오니, 그런 좋은 보물이 어디가 있소? 헌디 [illegible]주공산에다 던져두고, ㉢임자 찾어 못 전허고 죽게 되니, 이 아니 섧소이까?"
독수리 듣더니 딱 반허것다.
"㉣여봐라, 토끼야. 너를 살려 줄 텡깨 그것 나 줄래?"
"글씨요. 그런디, 그것 뺏은 다음에 나마저 잡어 잡술라고요?"
"아, 이 미련헌 놈아! 아, **너를 먹으면 한때 요기밖에 안 되**지마는, 아, 그 의사줌치를 가졌으면 내 **평생 양식 걱정**은 없을 텐디, 뭣 허로 내가 너를 **잡어먹**을 것이냐? 그것 어딨냐?"
"저기 저 **석산 바우 틈**에 가 들었소. 저, 저, 저것 보시오, 저. ㉤까막까치가 그것 냄새를 맡고 저렇게 넘노니고 야단났소, 시방."
"그러면 가자."

-작자 미상, 「수궁가」-

작품 적중

문학: 고전 소설 [18~21] 「수궁가」

2026학년도 수능

[아니리] 별주부 듣고 기가 막혀 이 급살 맞어 죽을 놈이 **동의보감**을 얼마나 통달하였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드니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고 죽을 밖에 없구나 하고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

호랑이 ㉢깜짝 놀래 에끼 이것 목 나온다 고만 나오시오 하루 수천 발 나오겠소 대체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나리로다 이놈 내 목 이 모양 된 내력을 들어 보아라

[자진모리] 우리 ㉡수궁 퇴락하여 영덕전 새로 질 제 일천팔백 칸 기와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추녀 끝에 뚝 떨어져 목으로 잘각 꺼꾸러져 이 모양이 되얏기로 명의다려 문의한즉 호랑이 쓸개를 열 보만 먹으면 목이 즉효헌다기로 우리 수궁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쓸개 한 보 못 주겠느냐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기어들며 도리랑 도리랑 허고 달려들어 호랑이 아랫도리를 꽉 물고 뺑 돌아 놓으니

[아니리] 호랑이 ㉠질색하여 아이고 별나리 이것 좀 놓아주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놓아라 호랑이 그 육중헌 놈이 자라에게 매달려 애걸을 허는듸

[중모리] 별나리 전에 비나이다 나는 오대독신으로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 일점혈육이 없소 만일 내가 죽게 되면 **선영**에 죄가 망극허오 차라리 내 왼눈이나 하나 빼 잡수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놔라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리다

[아니리] 별주부 가만히 생각한즉 쓸개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이 얼주검이 된 모양이라 꽉 물었던 호랑이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늦춰 놓으니

[휘모리] 호랑이 몽그랏다 후다닥 뛰어갈 제 [illegible] 닫듯 조총에서 철환 닫듯 오림에서 조조 닫듯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홀연히 간 곳 없네

[아니리] 전라도 **해남**에서 냅다 뛴 놈이 의주 **압록강 가**에서 숨을 내쉬고 한편을 살펴보는데 남생이 한 마리가 뾰쪼롬허고 내다보니 별주부로 알았것다 에끼 저놈 그 새 저기 쫓아왔구나 게서 또 후다닥 빼 놓은 것이 함경도 ㉣세수람 고개에다 덜럼 올라앉어 장담을 허것다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굳었으렷다

- 작자 미상, 「수궁가」 -

『이매진』 1호_2주차 DAY 4 [1~3]

[아니리] 해운군 방게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 와 여짜오되,

[B]
[중중모리] "신의 고향 세상이라.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벽계 산천 수국 가만히 잠신하야 천봉만학을 바라보니 산중토(山中兎) 월중토(月中兎) 안면이 있사오니,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 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득 집어다가 대왕전 바치리다."

[아니리] 공론이 분분할 제,

[진양조] 영덕전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은목단족(隱目短足)이요 장경오훼(長頸烏喙)로다.* 홍배 등에다 방패를 지고 앙금앙금 기어들어와 국궁재배(鞠躬再拜)를 허는구나.

[아니리]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 보시고 칭찬하시되,

[C]
"네 충심은 그러하나, 수국에서 인간의 세상엘 나가면 진미가 된다 한즉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쏜가?"
별주부 자라 여짜오되,
"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江上)에 높이 떠서 망보기를 잘하오니 무슨 낭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국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 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하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 들여라."

- 작자 미상, 「수궁가」 -

* 할고사군 개자추와 광초망신 기신: 진 문공에게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인 개자추와 한 고조가 포위되었을 때 자기가 왕인 척 초나라 군사를 속이고 대신 죽은 기신.
* 대모: 바다거북의 등과 배를 싸고 있는 껍데기로, 장식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함.
* 미리개 삼찰: 삼찍밀이. 삼찍은 귀밑에 나는 머리털로, 망건을 [illegible] 망건 밑으로 밀어 넣는 데 쓰는 도구.
[illegible] 염이 길고 입이 큼.
* 사풍세우: '사풍세우불수귀(斜風細雨不須歸)'를 뜻하는 것으로, 스쳐가는 바람과 가랑비 속에서 어부가 세월을 잊고 돌아갈 줄을 모른다는 의미.
* 은목단족이요 장경오훼로다: 눈이 작고 다리가 짧으며, 목이 길고 주둥이가 까마귀 부리와 같이 뾰족하다.

작품 적중

문학: 갈래 복합 [22~26] 「감나무 그늘 아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나)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짙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 고재종, 「감나무 그늘 아래」 -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3차

(가)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 때론 머리 위로 흰구름 이고
[illegible] 장대비 맞아보게.
[illegible]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짙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 고재종, 「감나무 그늘 아래」 -

작품 적중

문학: 갈래 복합 [22~26] 「감나무 그늘 아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①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는군.
② (가)에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 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겠군.
③ (나)에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④ (가)에서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겠군.
⑤ (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걸은 행동과, (나)에서 '질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illegible]' 모두,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illegible]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3차

2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찌 바람뿐이랴'와 '어찌 햇살뿐이랴'는, 이별 후의 심경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드러낸다.
②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이라는 표현은, 이별 후에 남아 있는 그리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상태를 형상화한다.
③ '그늘' 아래 '평상'을 놓는 것은, 이별의 상황을 성찰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산이 우는 소리'나 '계곡 물소리'는, 이별의 슬픔을 떨쳐 내기 위해 외부의 사물에 주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⑤ '질푸른 감들'이 '등불'이 되는 것은, 이별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내적 성숙의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을 암시한다.

선지 적중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5. ⓐ~ⓒ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는 ⓐ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② 화자는 ⓑ가 내는 소리와 ⓒ의 움직임을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임을 짐작하고 있다.
③ 화자는 ⓑ와 ⓒ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에 헤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떠올리고 있다.
④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를 만나기도 하고 ⓔ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유의미하다고 여기고 있다.
⑤ 화자는 ⓑ와 ⓒ가 감나무를 떠난 후에 ⓓ와 ⓔ가 오는 것을 보며 머지않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3차

24.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감나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② ㉡에서는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흰구름'을 이거나 '장대비'를 맞는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다림'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깃털 하나' 남지 않은 '조촐'한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⑤ ㉤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대상을 '묻어 주러 나간 날'의 고요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문학: 갈래 복합 [22~26] 「감나무 그늘 아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나)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짙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 고재종, 「감나무 그늘 아래」 –

7일의 기적 모의고사 4일차

(가)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아까는 오색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소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 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
[illegible]일 장대비 맞아 보게.
[illegible]은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짙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 고재종, 「감나무 그늘 아래」 –

작품 적중

문학: 갈래 복합 [22~26] 「감나무 그늘 아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①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는군.
② (가)에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 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겠군.
③ (나)에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④ (가)에서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겠군.
⑤ (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과, (나)에서 '질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7일의 기적 모의고사 4일차

2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게 된 상태를 보여 준다.
② (나)의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에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회의적 인식을 보여 준다.
③ (가)의 '바람'과 (나)의 '바람'은 모두 다른 대상의 정체에 대해 화자의 오해를 야기했던 요인을 나타낸다.
④ (가)의 '밤이면 잠 뒤척'이는 것과 (나)의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운 것은 모두 화자가 기피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⑤ (가)의 '마침내'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의 '얼마를 더'는 막막한 상황으로 인한 답답함을 강조한다.

7일의 기적 모의고사 4일차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다)는 모두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가)의 화자는 자연물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활용하여 이별의 아픔을 승화하려는 태도를, (다)의 글쓴이는 자연물과 인간의 공통점을 인식하면서도 인간 중심적 가치관에 따라 세계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① (가)에서 '감나무 잎새'가 흔들리는 까닭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대상의 모습과 화자의 내면을 관련짓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군.
② (가)에서 '그 기다림 날로 익'어 '서러움까지 익'게 되는 것은, 이별의 아픔을 승화함으로써 정신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③ (다)에서 '사람과 만물은 천지의 큰 화육 속에서 공생'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물과 인간의 공통점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④ (다)에서 '[illegible]고 해서 고조리 다 잡는 것을 좋게 여길 것[illegible]은, 자연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절제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군.
⑤ (가)에서 '새벽'에 일어나 '계곡 물소리'를 듣는 것은 이별의 아픔을 극복한 데 따른 평화로운 내면을, (다)에서 '군자가 [illegible]'을 기르는 것은 자연물을 인간의 편의를 위한 [illegible]는 자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보기> 적중

선지 적중

문학: 갈래 복합 [22~26] 「감나무 그늘 아래」

2026학년도 수능

(나)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 바람뿐이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아까는 ⓑ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짙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 고재종, 「감나무 그늘 아래」 -

『이매진』 3호 1주차 DAY 1 [1~3]
『이매진 HOT 100』 문학 Pick 11 [1~3]

(나)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
어찌 바람뿐이랴. [A]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B]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구름 이고 ┐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C]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D]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짙푸른 감**들, 마침내 ┐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E]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

- 고재종, 「감나무 그늘 아래」 -

작품 적중

문학: 갈래 복합 [22~26] 「감나무 그늘 아래」

2026학년도 수능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 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①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는군.

② (가)에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 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겠군.

③ (나)에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④ (가)에서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겠군.

⑤ (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과, (나)에서 '질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이매진』 3호 1주차 DAY 1 3번
『이매진 HOT 100』 문학 Pick 11 3번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 이후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사별한 대상과 소통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대상의 죽음을 수용하고 재회를 소망한다. 한편 (나)의 화자는 감이 익어 가는 모습을 사랑이 끝난 뒤 대상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연결 짓는데, 이 과정에서 내적 성숙을 이루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① (가)의 '저편 강기슭'을 향해 '뭐락카노'라고 부르짖는 '나의 목소리'를 통해, 사별한 대상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확인할 수 있군.

② (가)의 '썩어서 동아밧줄은 삭아 내'린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사별한 대상과 이승에서 맺었던 인연이 끊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③ (가)의 '하직을 말자'라고 하다가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라고 한 것을 통해, 대상의 죽음을 받아들인 화자가 대상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④ (나)의 '사랑이 끝'나고 '그리움 날로 자라'서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을 통해, 화자가 감 익는 모습에 빗대어 이별 후의 감정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나)의 '서러움까지 익어'서 마침내 '짙푸른 감'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이겨 내는 과정에서 내적 성숙을 이루려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보기> 적중

선지 적중

문학: 고전 시가 [31~34] 「북새곡」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온성이 떳 리런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홀연히 소주 장사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인(村人)의 솜씨 아녀
분명 관가 술일네 그 곡절 모를쏘냐
이 사람이 술 즐김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들으니
알은체 무엇 하리 담뱃대 둘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흥로와 진배없네
㉣유심터라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에서 종성 가기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삐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지고나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이 몰골 이 거동을 남 뵈기 부끄럽다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여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 드리운들 그 누가 저어하리

(중략)

여러 달 주리다가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장하건만 하나나 살로 가랴
여러 날 칩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뉘라서 어사 벼슬 좋다고 하던가
봉고파출* 쾌한 일가 형문 곤장 차마 하랴
못할 일 마지못하니 제 심정 글러지고
송사 진 이 원통하여 몹쓸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이 알리 그 말을 곧이듣네
고맙단 이 잠깐이오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구강, 「북새곡」-

상상국어 시즌2 모의고사 1차

(나)

급히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 살려 보세
둘째 령 올라서서 고을 지경 바라보니
열 집에 일곱 집은 휑하니 비었더라
읍중으로 들어가니 남은 집엔 곡소리라
작년의 이천여 호가 금년엔 칠백 호라
어리석은 **유 부사**와 **답답**한 **이 도호**는
나라 곡식도 중하지만 인명을 돌보지 않는가
백성 없으면 곡식 받아 그 무엇에 쓰려는가
출두한 후 명을 내려 이징 족징* 없애고
허두잡이 **부역**들을 태반이나 덜어 주고
신구 환곡 칠만 석은 탕감하자고 아뢰겠네

(중략)

그 누가 어사 벼슬 좋다고 하던고
봉고파출 유쾌한 일인가 형문 곤장 차마 하랴
못할 일 마지로 하니 제 마음씨 나빠지고
[illegible] 사람은 원망하며 몹쓸 말 지어내니
[illegible] 사람 어찌 알리 그 말을 곧이듣네
고맙다는 사람은 잠깐이요 원수는 여러 대(代)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니 못 할 것이 어사로다
어찌 다 좋으리 부끄러운 일 없으면
무슨 상관있겠는가 상관할 일 있더라
내 애써 다니면서 **백성 고통** 자세히 알아
낱낱이 **보고**했는데 조정에서 살펴보고
열에서 일고여덟 시행을 안 하면
허망하지 않겠는가 이 일이 상관있다
하물며 북도 백성 위로할 것 많더라
위로하여 주시면 나라 위해 물불을 안 가리리

-구강, 「북새곡」-

작품 적중
대목 일치

문학: 고전 시가 [31~34] 「북새곡」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온성이 떳 리런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홀연히 소주 장사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인(村人)의 솜씨 아녀
분명 관가 술일네 그 곡절 모를쏘냐
이 사람이 술 즐김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들으니
알은체 무엇 하리 담뱃대 둘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흥로와 진배없네
㉣유심터라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에서 종성 가기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삐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지고나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이 몰골 이 거동을 남 뵈기 부끄럽다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여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 드리운들 그 누가 저어하리

(중략)

여러 달 주리다가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장하건만 하나나 살로 가랴
여러 날 칩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뉘라서 어사 벼슬 좋다고 하던가
봉고파출* 쾌한 일가 형문 곤장 차마 하랴
못할 일 마지못하니 제 심정 글러지고
송사 진 이 원통하여 몹쓸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이 알리 그 말을 곧이듣네
고맙단 이 잠깐이오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구강, 「북새곡」-

상상국어 시즌5 모의고사 6차

(나)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려는가
굶주려서 가는 사람들인가 가게 되면 얻어먹나
아무 데나 한가지라 날 따라 도로 가면
자네 원님 가서 보고 편히 머물러 살 수 있게 하여 줌세
겨우겨우 대답하되 우리 살던 곳은 장진이라
여러 해 흉년 들어 살길이 없는 중에
도망한 사람 신구(新舊) 환곡을 있는 자에게 물리니
제 것도 못 바치면서 남의 곡식 어찌할꼬
못 바치면 매 맞으니 매 맞고 더욱 살까
정처 없이 가게 되면 죽을 줄 알건마는
아니 가고 어찌하리 굶고 맞고 죽을 지경이니
차라리 구렁에나 걱정 없이 묻히면
도리어 편할 것이라 이런 까닭에 가노매라
급히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 살려 보세

(중략)

덕취당 남은 왔다 북관 일 끝맺고 가자
북관의 아홉 고을 중 서쪽으로 네 고을에
일제히 공문 보내 이상한 구실 없게 하세
삼잉곡과 성정곡과 백일곡과 한유곡*과
양반 환작* 누정자(漏丁者)*들 백성에게 고통 준 일
엄하게 경계하여 다 없앤 후 보고를 하라 하소
보고서가 차차 온다 빠짐없이 가지고 왔으니
누만(累萬) 석을 얻었으니 그도 적지 않더라
그 백성들 **노래** 듣소 **어사의 은혜**라대
죄인들 많건마는 거기서 다 판결하고
고개 넘긴 일 없었더니 감격하더라대

-구강, 「북새곡」-

작품 적중

문학: 고전 시가 [31~34] 「북새곡」

2026학년도 수능

(가)

온성이 몇 리런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홀연히 소주 장사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인(村人)의 솜씨 아녀
분명 관가 술일네 그 곡절 모를쏘냐
이 사람이 술 즐김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들으니
알은체 무엇 하리 담뱃대 둘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흥로와 진배없네
㉣유심터라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에서 종성 가기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삐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지고나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이 몰골 이 거동을 남 뵈기 부끄럽다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여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 드리운들 그 누가 저어하리

(중략)

여러 달 주리다가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장하건만 하나나 살로 가랴
여러 날 침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뉘라서 어사 벼슬 좋다고 하던가
봉고파출* 쾌한 일가 형문 곤장 차마 하랴
못할 일 마지못하니 제 심정 글러지고
송사 진 이 원통하여 몹쓸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이 알리 그 말을 곧이듣네
고맙단 이 잠깐이오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 구강, 「북새곡」 –

『이매진』 7호 3주차 DAY 3 [1~3] 『이매진 HOT 100』 문학 Pick 17 [1~3]

(나)

㉡반년 넘게 다니다가 삼월에 보고하고
내 집에 돌아오니 모든 일이 한(恨)이 없다
전원(田園)이 황폐해지고 집이 쇠퇴한들
무슨 상관 있겠는가 노병이 살아왔다
평생토록 게을러 산중에 문을 닫고
나 홀로 누웠으니 어느 벗님 날 찾으리
조정에서 어찌 알고 임금님께서 지명하시어
관북 암행어사 중임을 맡기시니
변변치 못한 썩은 선비 무슨 일을 알던가
황공하고 민망하여 몸 둘 곳이 없더라
임금님의 망극하신 은혜를 어찌할꼬

(중략)

내 애써 다니면서 백성 고통 자세히 알아
낱낱이 보고했는데 조정에서 살펴보고
열에서 일고여덟 **시행을 안** 하면
허망하지 않겠는가 이 일이 상관있다
하물며 **북도 백성** 위로할 것 많더라
위로하여 주시면 나라 위해 물불을 안 가리리
불쌍하다 북도 백성 한양이 수천 리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리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어도
누구에게 말할쏘냐 청편이 하릴없다
[redacted] 수밖에 무슨 수가 있을쏘냐
[redacted] 박아 울며 놓지 아니하니
내가 차마 가겠는가 머물며 위로한 말
우리 **주상 전하님**이 너희 고통 염려하셔
날 보내어 알려고 하시니 내 가서 **아뢸 것**이니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치리라
비노니 햇빛 아래 백배(百拜)하고 비노니
봄기운이 은택을 베풀 때 그늘진 곳부터 먼저 하면
먼 곳의 저 사람들 거의 다 살 수 있으리

– 구강, 「북새곡」 –

작품 적중

화작: [43~45] 「완벽주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작문 상황]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여 학교 신문에 실으려 함.

[초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욕구가 커서 자신을 늘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이라 한다.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집단에서 친구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평가의 기준을 자신보다 타인에 두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지기 쉽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 때 불안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이 사회생활에서 회피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회피적 행동은 다시 불안을 가중한다.

그렇다면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타인의 인정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인지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상상국어 시즌4 모의고사 2차

저는 고등학생 △△입니다. 저는 과제가 있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고치거나 처음부터 다시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못 끝낼 때도 많고, 집에서 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때는 잠을 거의 안 자고 과제를 하기도 하는데, 막상 결과물이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매번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 내려놓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과제를 고치거나 다시 하는 것을 반복하는 습관 때문에 지친다는 △△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 님처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사연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완벽주의는 '순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순기능적 완벽주의자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에,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까지 계속 되돌아보며 자신이 잘 수행했는지, 잘못을 하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늘 자신의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은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평가에 대한 불안이 잘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고, 실수를 실패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비합리적 사고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하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실수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완벽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때 자신이 떠올린 비합리적인 생각을 글로 기록한 뒤 이를 반박하는 말을 써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하기' 방법도 실수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극복하고 순기능적 완벽주의로 나아가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연계 핵심 소재,
중심 내용 적중**

언어: [35~36] 「국어사 - 문자의 형식과 내용」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4자모는 각각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ㅛ'처럼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 모음([jo])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어울러 쓴 모음자 중에는 단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ㅖ'와 'ㅘ'는 각각 'ㅓ'와 'ㅣ', 'ㅗ'와 'ㅏ'를 어울러 쓴 것인데, 'ㅖ'는 단모음([e])을, 'ㅘ'는 이중 모음([wa])을 나타낸다. 'ㄱ' 두 개를 어울러 쓴 'ㄲ'도 초성에서 하나의 소리, 즉 된소리 [k']를 나타내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ㅅ'과 'ㄱ'을 어울러 쓴 합용 병서 'ㅺ'으로 [k']를 나타냈다.

한편 어울러 쓴 자모 하나가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나의 이중 모음이 어울러 쓴 자모 두 종류와 결합한 경우도 있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ㅚ', 'ㅟ'는 각각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는 어울러 쓴 모음자 'ㅚ'가 단모음, 이중 모음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한 것으로 전자의 예이다. 이에 비해 이중 모음 [we]는 어울러 쓴 모음자 'ㅞ'로 나타내는데, 'ㅙ'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후자의 예이다.

형식과 내용의 결합은 변할 수 있다. 'ㆁ'은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형식이 바뀐 예이다. 현대 국어와 달리 'ㅖ'는 15세기 국어에서는 이중 모음([əj])을 나타냈는데, 이는 형식은 그대로이면서 내용이 변한 예이다. 형식과 내용이 모두 변한 경우도 있다.

상상국어 시즌5 모의고사 6차 37번

<보 기>

모음은 표기된 형태와 현실 발음에 차이가 있어 혼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모음 중 ⓐ'ㅐ'와 'ㅔ'를 구분하지 않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ㅢ'를 'ㅡ'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단모음인 'ㅚ'와 'ㅟ'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나 ⓓ이중 모음 'ㅟ'를 단모음 'ㅣ'로 발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표준 발음법에서 'ㅚ'는 반모음 'w'와 'ㅐ'를, 'ㅟ'는 반모음 'w'와 'ㅣ'를 연속하여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ㅢ'는 'ㅣ'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반모음을 발음하지 않고 탈락시켜 이중 모음과 단모음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26 N제 상상국어 언어와 매체 21일차 35~36번

한편 16세기 이후 소실된 'ㅿ'은 유성음 사이[한숨(>한숨)]에 쓰였는데, 동국정운식 한자음[人신(>인)]과 사잇소리[눉물(>눈물)]로 쓰였으나 용언의 활용형[나ㅿ아(>나아)]이나 ⓔ고유어 어두[즘겁다(>싱겁다)]에 쓰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ㆁ[ŋ]'은 'ㅇ'으로 형태가 바뀌어 문자만 소실되고 음가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에는 초성[바ᄋᆞᆯ(>방울)]에도 쓰였다. 이와 더불어 'ㅇ[ɦ]'은 문자가 소실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 국어의 초성에서 음가가 없는 것과 달리 음가가 있는 경우[몰애(>모래)]와 현대 국어처럼 음가가 없는 경우[아ᄋᆞᆷ(>아우)]로 모두 쓰였으며, 음가가 있는 경우 끊어 적었다.

상상국어 시즌4 모의고사 1차 35~36번

15세기 국어에서 잘 지켜졌던 모음조화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ㆍ'가 소실되고, 이와 더불어 이중 모음이었던 'ㅐ, ㅔ, ㅚ, ㅟ'가 단모음으로 바뀌면서 단모음 체계는 '축'에 의한 대립이 아니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의 대립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때 'ㅣ'는 그대로 중성 모음으로 남았지만, 'ㆍ'를 제외한 설축 모음과 'ㅐ', 'ㅚ'는 양성 모음으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모음은 음성 모음으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ㆍ, ㅗ, ㅏ : ㅡ, ㅜ, ㅓ'로 균형을 이루었던 대립이 무너지게 되면서 모음조화가 약화되었다.

핵심 내용 적중

언어: [36] 「국어사 - 문자의 형식과 내용」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6.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훈민정음』(해례본)에는 <한글 맞춤법>의 한글 자모 24자 외에 'ㆆ, ㅿ, ㆁ, ㆍ' 4자가 더 있었다.
○ 15세기 국어에서 'ㅺ, ㅽ, ㅾ…'의 합용 병서는 초성에서 두 소리의 연쇄로 발음되는 자음군을 나타냈다.
○ 15세기 국어의 'ㅿ'은 15세기 국어의 'ㅅ'과 같은 조음 위치의 유성 마찰음을 나타냈다.
○ 15세기 국어에서는 경구개음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아서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료>

	㉠	㉡	㉢	㉣	㉤
15세기 국어	앗겨(←앗기어)	이ᄲᅢ	어버ㅿ	ᄀᆞᆮ	즐기디
현대 국어	아껴(←아끼어)	입때	어버이	가득	즐기지

①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illegible] 형식과 같고 내용도 반모음과 단[illegible] 같군.
②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ㅥ'은 'ㅂ'이 나타내는 소리와 'ㅌ'이 나타내는 소리의 연쇄였고, 'ㅥ'의 'ㅌ'은 현대 국어의 'ㅌ'과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랐군.
③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ㅿ'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소멸되었군.
④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ㆍ'는 형식이 소멸되었고 내용은 다른 소리로 변했군.
⑤ ㉤을 보니, 'ㅈ'은 'ㅐ'와 마찬가지로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형식은 같고 내용은 다르군.

<보기> 내용 적중

상상국어 시즌2 모의고사 2차 35~36번

[A] 15세기 국어에는 경구개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개음화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대 국어의 경구개음 'ㅈ, ㅊ, ㅉ'과 치조음 'ㅅ, ㅆ'은 15세기 국어에서 모두 치음으로 분류되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고쳐[고처]'와 같이 'ㅈ, ㅊ, ㅉ' 뒤에 반모음 'j'가 올 경우 경구개음과 반모음 'j'의 조음 위치가 중복되기 때문에 반모음 'j'가 탈락하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쵹[燭]'와 같은 표기가 나타나 반모음 'j'가 탈락되지 않고 발음되었다. 이를 통해 15세기에는 'ㅈ, ㅊ, ㅉ'이 경구개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간 '맞-'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결합할 경우 '맛고'로 표기됐는데, 이런 현상은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 중 동일한 조음 위치의 자음으로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ㅈ'과 'ㅅ'의 조음 위치가 동일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대 국어에는 마찰음에 유성음이 존재하지 않지만, 15세기 국어에는 유성음 계열의 마찰음 'ㅸ, ㅿ, ㆆ'이 존재했다. 이러한 유성 마찰음은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는데, 첫음절의 초성에 올 수 없고, 주로 모음이나 반모음 'j', 음음 'ㄹ' 뒤에 나타났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유성 마찰음은 [illegible] 다른 음운으로 바뀌었다. 'ㅸ'의 [illegible] 모음에 따라 양상이 달랐는데, '글발(>글월)'처럼 후행 모음이 'ㅜ'나 'ㅝ'일 경우에는 반모음 'w'로 바뀌었고, '치뵤니(>치우니)'처럼 후행 모음이 'ㆍ'나 'ㅡ'일 때에는 이 모음들과 결합하여 'ㅗ'나 'ㅜ'가 되었다. 'ㅿ'은 '스ㅿ(>사이)'처럼 주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탈락하였다. 'ㆆ'은 이어 적지 않고 끊어 적은 것을 통해 유성 마찰음의 음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놀애(>노래)'처럼 탈락하기도 했고, '벌에(>벌레)'처럼 탈락 후 'ㄹ'이 추가되기도 했다.

상상국어 시즌5 모의고사 7차 36번

36.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가) 중세 국어(15~16세기)
- 구디 … 딕희위 [굳이 … 지키어] - 『번역소학(1518)』
- 어듸 겨시니잇고 [어디 계십니까?] - 『석보상절(1447)』

(나) 근대 국어(17~19세기)
- 구지 직희여 [굳이 지키어] - 『삼역총해(1703)』
- 어듸 잇는다 [어디 있는가?] - 『오륜전비언해(1721)』

(다) 현대 국어(20세기 이후)
- 굳이 지키어
- 어디 계십니까?

① (가)의 '구디'와 '딕희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ㅈ, ㅊ'이 아직 경구개음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군.

언어: [37] 「문장 - 관형어 / 높임 표현 / 서술어 자릿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7.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조건]
-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것.
- 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 나타날 것.
-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와 둘인 서술어를 포함할 것.

① 편찮으신 음악 선생님을 세 학생이 보건실로 조심히 모셨다.
②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책을 몇 장 읽으시다 잠자리에 드셨다.
③ 끊임없는 노력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다.
④ 유난히 길어진 추위에 할머니께서는 온갖 걱정을 다 하셨다.
⑤ 저 가게에서 파는 떡이 정말 맛있다며 삼촌은 입맛을 다셨다.

상상국어 시즌2 모의고사 1차 38번

38.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조건]
- 안긴절의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안긴절이 안은문장의 부속 성분으로 쓰일 것.
- 안은문장에서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할 것.

① 선생님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만을 바라신다.
② 할아버지께서 편히 주무시도록 조용히 해 주세요.
③ 아버지는 소고기가 작년보다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④ 할머니는 삼촌이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을 들으셨다.
⑤ 그가 듣기로는 그때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다.

<보기> 모든 조건 일치

언어: [38] 「담화 - 담화 상황의 이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정원과 지수가 카페에서 만난 상황>

정원: 어머, 지수야 안녕? ㉠ 여기는 무슨 일이야?
지수: 응, 안녕? 이따 학생회 회의가 있어서. ㉡ 이번에 □□고등학교하고 연합 체육 대회를 하잖아.
정원: 아! 맞다, 네가 체육부장이지? 작년에는 ㉢ 거기 운동장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학교에서 하겠네?
지수: 맞아. 올해는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하기로 해서 할 게 많더라. 경기 종목 정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
정원: 간식 준비도 우리가 해? ㉣ 그때도 여기서 준비했잖아.
지수: 응, ㉤ 그쪽이 대신 기념품 맡는대.
정원: 그래도 간식 준비가 훨씬 힘들지. ㉥ 거기랑 좀 나눠 맡자고 해.
지수: ㉦ 그건 ㉧ 그래. 근데 ㉨ 그건 이미 결정되어서 다시 분담하기가 좀 ㉩ 그러네.

① ㉠과 ㉢은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② ㉡은 발화시와 동일한 때를 가리키고, ㉣은 발화시 이전의 때를 가리킨다.
③ ㉤과 ㉥은 청자를 포함한 대상을 나타낸다.
④ ㉦과 ㉨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가리킨다.
⑤ ㉧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은 상대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

상상국어 시즌4 4차 37번

37.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민, 수현이 교실에서 학교 축제를 준비하는 상황)
지민 : (책상을 들고) ⓐ 저기, 책상은 ⓑ 여기에 놓으면 될까?
수현 : 아니, ⓒ 거기보다 오른쪽에 두는 게 더 좋을 거 같아. (손으로 가리키며) ⓓ 저기에 두면 될 것 같아.
지민 : 응, 근데 왜 ⓔ 여기로 책상을 열 개나 가져다 달라고 했어?
수현 : 지난주에 갔던 카페처럼 교실 앞에 책상을 길게 배치하고 화분을 두면 될 것 같아서. (자신이 꾸민 책상을 가리키며) 어때? ⓕ 이렇게 꾸며 보려고.
지민 : 아, 그러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 이건 어때? ⓗ 거기처럼 책상 위에 장미꽃을 올려 두는 거야.
수현 : 그래. 한번 해 보자.

① ⓐ와 ⓓ는 같은 형태의 지시어이지만, 각각 호칭어와 지칭어로 사용된 것이다.
② ⓑ와 ⓒ는 모두 화자의 관점에서 사용된 지칭어이다.
③ ⓑ와 ⓔ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보다 ⓔ가 가리키는 공간의 범위가 넓다.
④ ⓕ와 ⓗ는 모두 앞에서 한 발화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⑤ ⓖ는 뒤따라 나오는 발화에서 언급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지 내용 적중

언어: [39] 「단어 - 의존 형태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국어의 의존 형태소에는 접사, 조사, 어미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제시된 자료 ㉠~㉢을 분석해 보자.

㉠: 발표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모두 목소리를 낮췄다.
㉡: 비에 젖은 옷들을 말리는 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
㉢: 나는 내일 친구랑 만나 미술관이랑 영화관에 가.

① ㉠의 '시작되자'와 '낮췄다'의 접미사는 모두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
② ㉠의 '낮췄다'와 ㉡의 '빼앗겼다'는 모두 사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③ ㉠의 '시작되자'와 ㉡의 '말리는'은 모두 피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④ ㉢의 '친구랑'과 '미술관이랑'의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른 이형태 관계에 있고,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하게 한다.
⑤ ㉢의 '만나'와 '가'의 어미는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26 N제 상상국어 언어와 매체 24일차 35~36번

피동과 사동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용언 어근에 피·사동 접사를 결합하는 방식이 있다. 피동사는 용언 어근에 주로 피동 접사 '-이/히/리/기-'를 결합하여 만드는데, 가령 ㉠'안기다'는 타동사 어근 '안-'에 피동 접사 '-기-'가 결합된 것이다. 또 사동사는 용언 어근에 주로 사동 접사 '-이/히/리/기/우/구/추-'를 결합하여 만드는데, ㉡'낮추다'는 형용사 어근 '낮-'에 사동 접사 '-추-'가 결합된 것이고, ㉢'깨우다'는 자동사 어근 '깨-'에 사동 접사 '-우-'가 결합된 것이다.

상상국어 시즌5 6차 38번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조사는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 특정한 기능을 하는 단어로, 기능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나뉜다. 격 조사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결합하여 그 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고, 보조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나 어미 등에도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며, 접속 조사는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 그런데 접속 조사는 두 체언을 구로 묶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게 하고, 보조사는 격 조사 대신 체언 뒤에 결합하여 체언과 함께 특정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되는, 조사의 종류가 모두 나타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식당에서 카레와 우동, 초밥까지 시켜 먹었다.

① 원래는 됐었는데 이제 화면마저 켜지지가 않는다.
②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월은 빨리도 흘렀구나.
③ 준비한 발표랑 과제를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
④ 오늘 형님하고 어머니만 뮤지컬을 보러 가신단다.
⑤ 아이에게 예쁘다거나 귀엽다라는 말부터 해 줘라.

선지 적중

판단 근거 적중